



문 흥 석

1989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7 : 미국 Columbia 대학교 보철과 전공의 수료
 1997 : 미국 Columbia 대학교 석사
 1997-현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전임강사

교합의 개념은 총의치의 제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Hanau, Gysi와 Monson 등이 교합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합기의 개발과 발전을 이루었다. 당시에 이들의 작업은 총의치 제작에만 국한이 되었으며 후에 이러한 교합 개념은 자연치에도 적용이 되었으나 양측성 균형교합은 자연치열에서는 유해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양측성 균형 교합은 의치의 안정성과 저작 기능시의 힘의 분산, 또한 잔존지지 조직의 보호를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러한 교합의 개념은 교합기와 그에 따른 인공치의 개발과 더불어서 발전이 되어 왔는데, 1920년 중반까지는 자연치를 그대로 모방한 형태의 인공치를 사용하였으나 이후에는 Gysi 등 여러 학자에 의하여 교합기 상에서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제작된 치아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해부학 및 비해부학적 형태의 치아가 고안되었다. 무치악 환자들을 위한 여러 교합 개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측성 균형 교합은 총의치 제작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며 또한 총의치 교합 개념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교합 개념 중 어느 것이 과학적으로 더 우수한지는 규명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한 가지의 교합 개념이 모든 조건에 맞을 수가 없으므로 술자는 환자의 상태 및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형태의 교합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본 연제는 양측성 균형 교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